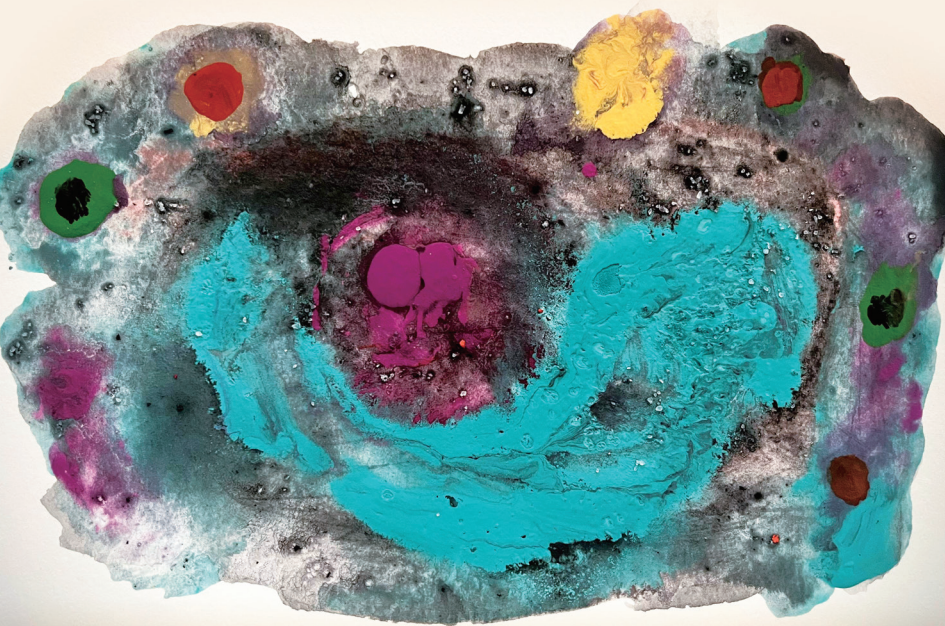


2024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

마태복음서 5:43-48



2024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

마태복음서 5:43-48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순례의 길을 나서며 04

주제 성구 06

주제 해설 08

묵상집 사용 안내 11

12

재의
수요일

16

사순절
첫째주일

23

사순절
둘째주일

30

사순절
셋째주일

37

사순절
넷째주일

44

사순절
다섯째주일

51

종려
주일

52

고난주간
현장기도

63

부활
주일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

다시, 사랑의 길을 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처럼 갖가지 기후 재난과 참담한 전쟁의 소식이 무수히 들려오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을 지나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말입니다.

인간의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된 지점에 역설적으로 지구는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과 폭력, 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이기적 문명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양산되는 갖가지 미움과 혐오, 우파적 극단주의와 선동, 죽음과 죽임에 대한 무감각은 우리가 과연 인간성,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며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걷고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큰 결단과 용기를 내야 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흥미해져 있는 우리에게 참사랑을 일깨웁니다. 정치·종교 권력의

무서운 폭력 앞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린 선전선동의 왜곡과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의 위협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셨지요. 그리고 참혹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때에도 또 지금도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위험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시대 기준에 못 미쳐 경계 밖에 있던 이들, 천대받던 이들, 배고프고 외롭던 이들, 울며 탄식하던 이들, 외롭고 지쳐 쉬고 싶었던 이들이 눈물을 닦고 웃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지금 이 참혹한 시대에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순례의 길은 이 질문으로 첫 발걸음을 땀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길을 따라 걷는, 즉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임을 다짐합니다. 이전에 두려워만 했던 그 길을 다시, 용기를 내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우리는 사랑입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 종 생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이 광 섭

신명기 10:12-19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1-10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서 5:43-48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실천적 사랑

신명기 10:12-19, 고린도전서 13:1-10, 마태복음서 5:43-48

정경일 | 평화와 신학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는 사랑보다는 배타, 혐오, 독선, 오만, 타락의 복합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열렬히 사랑을 설교하고 노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은 빈약한 사랑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와 같습니다. 또한 사랑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는 “공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때 실천적 사랑은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 생각이나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말하지만 실천적 사랑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혐오의 종교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교의 근본 위기입니다. 어쩌다,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사랑은 그 기원부터 사회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로 알려진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하나님 신앙의 독특성을 선명히 보여 줍니다. 우선, 신명기 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주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이 보이는 또 하나의 종교적 독특성은 사랑과 정의의 연결입니다. 히브리인은 가난과 차별과 배제를 불의로 인식했고, 하나님을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신으로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이 선포한 정의는 신적 사랑의 사회적 실현이었습니다. 많은 종교 전통이 자비와 사랑을 말하지만, 유대-그리스도교 전통만큼 사랑을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실현하려 애쓴 종교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해 부끄럽고 괴로운데 원수 사랑이라니, 조시마 장로의 말처럼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원수 사랑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경계 또는 반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와 유대 정치권력이나 예루살렘 성전 종교권력이 사랑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랑을 고귀한 가치로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과 종교법상 정결한 신자만을 사랑하는 ‘편애’였습

니다. 그 편애의 경계 바깥 타자는 야만인이고 반란자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제적 편애의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에게 위협한 것이었고, 그 위협한 사랑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서 본문은 아마도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감 가득한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도 이상적이고 신비하고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관계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오래 참음, 친절, 시기하지 않음, 뽐내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이익을 구하지 않음, 성 내지 않음, 원한을 품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덮어 줌 등은 모두 인간의 관계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카렌 암스트롱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마음 속의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신자를 북돋고 세워주는 실천적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관계적 사랑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흔히 구약성서는 ‘정의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신약성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사랑이 교회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동기와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목상집은,

-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하심의 여정을 통해 이 시대 참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며, 참혹하고 어려운 시대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길을 이웃과 함께 걸을 것을 다짐하는 초대입니다.
- 특별히 고난주간은 노동 현장, 팔레스타인 전쟁, 정치사회 개혁 문제, 기후재난 위기, 세월호 사회적 참사 등 시대적 과제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성경은 '새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 목상집의 형식은 '제목-성서-목상글'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해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상집 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필진

임의진

순례자복음교회

정경일

평화와 신학

정금교

누가교회

최진영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신학교

표지
그림

“참회하는 사랑(Penitential Love)” by 마크 엘리스(Marc H. Ellis)

* 작가 설명은 45p.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 방식

재의 수요일

2월 14일
수요일

요한복음서 1:23-27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यो.”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너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증명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을 조명하며 이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내가 빛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대답을 세례요한이 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대답을 하려면 무엇이냐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늘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갇힌 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은 이웃이 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이웃의 증인이 우리를 조명하는 게 성서적입니다. 우리 시대는 외롭고 가난하며 갇힌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편견과 차별에 갇힌 이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사르며 피어나는 불꽃

2일째

2월 15일
목요일

요한복음서 8:11b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다’는 ‘맞이하다, 맞다’란 말에서 나왔다고요. 해맞이, 달맞이, 손님맞이, 모두 ‘만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죠. ‘맞당기다, 맞닥뜨리다’도 맞이하는 행동을 담아낸 말입니다. 한편 사랑이라는 말은 ‘사르다’에서 왔습니다. ‘불사르다’의 그 ‘사르다’ 말입니다. ‘사르’는 ‘양’이 사랑이 되었다고요(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 애뜻이 여기는 마음이 불사르듯 타오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뜨겁다’고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주저하지 않고 사귀며, 마치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라 권하셨습니다. 한껏 사랑하길, 끓어오르는 애뜻한 마음을 불사르듯 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예수님은 죄 많고, 외톨이에다, 병든 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용서의 축복을 동시에 베푸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실천한 사랑법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품으로 돌아가세요.” 불미스러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팔매질로 죽어가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판결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선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다시 한 번의 기회,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부여받은 오늘의 삶과 시간,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3일째

2월 16일
금요일

베드로전서 3:8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종교철학자 존 힉은 구원이란 ‘자기 중심성(self-centeredness)’에서 ‘타자 중심성(other-centeredness)’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자란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other)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또는 궁극적 실재(Other)를 가리킵니다. 타자 중심성이란 이기적이고 고립적인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인 이타적, 관계적 자아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자 중심성에서 ‘나’는 ‘또 다른 나’인 ‘너’가 있어 ‘나’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적 존재성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17세기의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시인인 존 던이 말합니다. “인간은 섬이 아닙니다. 누구도 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나를 약해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또 다른 나인 너가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회복하고 구원하려면 너의 안녕(well-being)이 필요합니다. 타자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타자의 구원은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말없이 행하는 자비

4일째

2월 17일
토요일

요한1서 3:18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벤허>에서 감동하게 되는 장면 중 하나는 나사렛에서 벤허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로마 총독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된 벤허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손목이 묶인 채 갠리선으로 끌려갑니다. 노예들을 인솔하는 로마군 장교는 유독 벤허에게 혹독합니다. 벤허의 죄목이 반역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인과 노예 행렬이 나사렛에 들어왔을 때, 나무를 톱질하고 있던 목수가 일손을 놓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마을 우물가에 도착한 군인들과 노예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인솔 장교는 벤허만은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갈증과 절망으로 땅에 쓰러진 벤허는 신음하듯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며 흐느낍니다. 그때 목수가 조롱박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서는 벤허의 얼굴을 씻어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를 본 장교가 채찍을 든 채 성난 표정으로 다가오지만, 목수의 얼굴을 보고는 기죽은 표정을 지으며 물러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알아차리죠. 네, 예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예수의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자비를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되,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행동과 진실함입니다.

갈라진 마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사순절 첫째주일

2월 18일
일요일

로마서 15:1b-3a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 분단의 현실에 더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 “갈라진 마음”의 사회에 살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어렵게 들립니다(롬 12:16). 한 마음을 이루는 본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이끄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한 믿음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걸림이 될까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 예배당에 걸어 들어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심으로 저는 집안에 있던 부적들을 모두 떼어버리고, 명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배타적 신앙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개인 신앙의 정도에 두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행하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형제-자매 사랑(필라델피아)과 손님 대접하기(필로제니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롬 12:10, 15). 필로제니아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비아와 편가르기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너희가 해결하라

5일째

2월 19일
월요일

누가복음서 9:12-15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해결책에는 각자도생의 세상 논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절박함 앞에서 함께 해결하도록 손을 내밀기보다 알아서 살라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우리네 현실을 참 잘 드러내 줍니다. 이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다른지를 보게 합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삶의 방식은 붕괴하고 핵가족을 넘어 일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갑니다. 산업구조와 경제 정책의 지향이 가족과 개인 삶의 형태를 변형시켰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1명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고위험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2023.3.22. 세계일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너희가 해결하라.” 말씀을 숙고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교회는 각자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진 이웃을 찾아야 하고, 살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무리 중에서 도시락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다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했다는 그 시도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등개등개 자식 타령

6일째

2월 20일
화요일

누가복음서 23:29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저출생 원인은 가임기 젊은이들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든 ‘지옥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대대적 침공을 받아 산산조각 파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퍼붓는 폭격만큼이요. 예수님은 새로 지어진 푸른 나무같은 도시도 이 지경인데 마른 나무(옛 도시 예루살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한탄하십니다. 자녀가 있는 이에게 전쟁은 배나 무서운 시련과 공포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자녀들이 죽는 걸 어떻게 지켜보니까. 역설적으로 성서기자는 ‘무자식 상팔자’란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과거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 단언하기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요즘은 이미 재산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놓아야 자녀 양육이 무난한 시대입니다. 가난한 부부들에게 자녀 계획은 곤란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화와 안정 대신 불화와 반목, 남북 분단과 대결에 열을 올리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적개심과 전쟁의 서막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는 세상에, 역설적으로 저출생과 미래를 염려하여 출산을 늘려야 한다는 구호는 어디에,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걸까요. 등개등개 우는 막내를 업고 달래면서 공장 굴뚝 너머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풍경, 이제 생각해보니 천국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꿈

7일째

2월 21일
수요일

사도행전 2: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초기 교회의 첫 오순절 체험을 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갈 3:28). 요엘서를 인용한 오늘 본문은 비전을 보는 일에 청년과 노인의 구별이 없음을 포함시킵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특히 6,70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2,30대의 MZ 세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한 것을 고려할 때, 새시대의 예수공동체는 세대를 초월해 같은 비전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산업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은 정치 혁신과 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 집단으로 보입니다. 백세 시대가 왔지만 더 길어진 수명 자체가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지만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과 고독 속에 사는 노인들에게 꿈을 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노인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상담복지학 교수는 ‘노인 집단’은 꿈이 없어 보이나, ‘노인 개인’은 꿈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인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세상일지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서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경계와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노인 집단의 꿈이 청년들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며 평등 평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날을 꿈꾸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8일째

2월 22일
목요일

요한복음서 1:49-51

나디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성서는, 예수님이 제자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들판에서 자면서 꾸었던 꿈과 닮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길에 올라 한뼉잠을 자던 중에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지요. 잠에서 깨어 거기에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서원한 후 ‘벤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훗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거처를 정합니다. 야곱은 유대민족을 이루는 열두 지파의 아버지였고, 벤엘에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꿈이 성전 개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 당신을 증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독특한 증언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참 성전이라는 선언은 새로운 종교라고 할만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해는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과 대비됩니다. 유대인들이 품었던 현실적 체계와 힘을 바탕으로 한 성전 회복의 이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음을 봅니다. 그 어긋난 방향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가게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시 어긋나 있으니 예수님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

9일째

2월 23일
금요일

마가복음서 14:22-23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기온이 0.7도가 올랐고,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장차 지구 온도가 2도나 올라갈텐데, 이를 막아낼 가능성이 1/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모두 녹색을 갖다 쓰지만 황망한 언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도 버젓이 사용합니다. 긴축과 감축이란 말이 왜 그리 두려운 걸까요. 성장이란 말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요.

생존이 아닌 축적, 욕심으로 향해 가면서 제로가 되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행동을 불온시합니다. 이 성찬식은 저장하지 않으며 지금 전부를 나눌 때, 욕심내지 않을 때 다음 성찬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요한 바티스트 메츠는 “이 생명의 떡은 슬픔과 두려움을 깨우는 떡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라고 말했지요. 만약 제게도 묻는다면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만찬을 나눌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다같이 풀어야지 따로, 개인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여럿이 함께’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식사를 마친 뒤에 우리 다같이 머리를 맞대 봅시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10일째

2월 24일
토요일

마가복음서 8:31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팔레스타인 시인이자 가자 이슬람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레파앗 알라리어(Refaat Alareer)는 2023년 12월 초 44세의 나이에 몇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시를 번역해 봅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천조각과 무명실을 사세요/ (긴 꼬리를 가진 하얀
연을 만드세요) / 가자 어느 곳에선가 한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누구에
게도/ 심지어 그의 육체에도/ 그 자신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못하고/ 화염 속
에 남겨진 그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이가/ 그 연이, 당신이 만든 나의 연
이/ 저 위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서는/ 잠시, 거기 한 천사가/ 사랑을 가져
다 주고 있다고 생각도록/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희망을 가져오
기를/ 그것이 한 이야기가 되기를/

마가복음 8:31의 한글 번역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원문이 지니고 있는 필연성의 의미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순간을 예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만약 내가 당신과 죽어야 한다면” 자신은 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맹세했지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죽는 죽음이 없도록, 예수님은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앓은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마 4:16).

“피로 지은 집”

사순절 둘째주일

2월 25일
일요일

마가복음서 13: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높은 집은 피로 지은 집/ 노동자가 떨어져 죽어야/ 간신히 한 층이 올라가는 집/ 또 무너져서 길을 덮치고/ 음악을 들으며 지나가는/ 중학생 아이가 지워져야 완성되는 집/ 살아 있는 목숨이 낮아져야 높아지는 집// 내가 사는 낡은 아파트도/ 올챙이와 미꾸라지와 종다리의/ 피로 지은 집/ 잠자리와 메뚜기의 보금자리를/ 철거하고 올린 인간의 집/ 아파트 창문에 비친 붉은 노을도/ 들 판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황규관 시인은 ‘나비의 애벌레들을 죽이고 지은 집, 노동자의 헛발로 완성된 집’을 한 편의 시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비용으로 처리된 집’.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습니다. 혈값의 인력, 이주민 노동자들이 주로 험한 현장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준량 철근이 빠진 아파트를 풍자하여 ‘순살 아파트’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건설 도중에 외벽이 무너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든 건물이 낡고 허물어지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실공사로 지어진 엉터리 집들과 환경파괴의 난개발로 지어진, ‘피로 지은 집’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철근이라도 하나 더 빼들려서 제 욕심을 채우려는 물신의 세계는 추악합니다. 심판과 분노의 날에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주님을 뵈을지요.

저 손 좀 봐

11일째

2월 26일
월요일

마가복음 6:2-3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마가는 유독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손으로 환자를 만져서 고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의 집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적들을 일으킬까?” 예수님의 직업, 목수는 사실 손으로 단단한 자재들을 다루는 석공이나 건축 노동자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64년 제2성전 재건을 마칠 때 18,000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나 갈릴리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 그의 손은 나사렛 마을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손으로 병든 이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지요. 예수님께서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뵈음에도 그의 사회적 위치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듯이, 육체노동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손에 대한 언급들도 없애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도 “목수의 아들”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화려한 고층 빌딩도 모두 노동자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끝내 노동자였던 예수님 손에는 못이 박힙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가 보는 그 손에는 여전히 그의 삶, 노동,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막아야

12일째

2월 27일
화요일

시편 31:12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절대로 잊지 않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일 년이 가도 십 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절대로 잊지 않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우리가 눈물 흘리며 수 없이 불렀던 노래 <잊지 않을게>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100일째 되던 날 열린 시민 추모 문화제 제목은 “네 눈물을 기억하라”였습니다. 한 가족처럼 슬퍼하고 아파했던 우리 자신의 눈물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고 호소였죠. 이제 곧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봄날에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 간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집트 <사자(死者)의 서>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이고, 두 번째는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라고 합니다. 망각이 최종적 죽음이라는 거죠. 잊히면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깨진 그릇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하는 한 죽은 자는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는 교회 가운데 계속 살아 계신 것도 그 때문이죠. 세월호 아이들의 첫 번째 죽음은 못 막았지만 그들의 두 번째 죽음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외롭지 않게 하는 기억·약속·책임입니다.

성령의 깊은 탄식

13일째

2월 28일
수요일

로마서 8:33-35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국가나 제국의 폭압적인 권력은 피지배 백성들을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해 다양한 형벌의 장치들을 고안해냅니다. 몸에 고통을 가하는 고문 외에도, 발가벗겨 성적인 수치심을 줌으로 몸뿐 아닌 영혼의 존엄함을 파괴하는 처벌의 형태는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고난을 “헐벗음”이란 말로 묘사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치안관에 의해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 매맞고 옥에 감금됩니다(행 6:22-24). 그는 사도들의 모습을 원형경기장에서 발가벗겨져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사형수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고전 4:9, 11).

역설적으로, 그 무력해 보이는 발가벗겨진 몸들은 제국의 폭력이 옷은 벗겨낼지언정 그 몸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박탈할 수는 없음을 드러냄으로 포악한 세상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를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몸의 구속을 당하거나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일이 세계 도처의 전쟁터, 난민 캠프, 이민자 수용소, 교도소, 심지어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고통받는 몸들과 함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HIV 감염인을 위한 추모

14일째

2월 29일
목요일

누가복음서 10: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HIV 감염인에 대해 세상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로 대하였습니다. 발생 초기였던 1980년에는 소문과 공포를 검증 없이 마구 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지금도 감염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태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태만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HIV의 오해를 풀어주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세월 동안 혼자 아프고 외롭게 견디다가 또 그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했을 감염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현재 HIV 감염은 백신도 있고, 예방약도 있고, 치료약도 있는 병입니다. 오해와 무지로 감염인을 배제한 탓에 그들은 사회에서 장애 아닌 장애를 얻었으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걸음을 내디딜 때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십시오. 정당하게 주장하는 감염인의 목소리가 세상의 무지를 바꿔내고, 세상에서 동등하게 살게 되는 날, 앞서 외롭게 죽어야 했던 감염인들의 영정에 밝은 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본래 의지이며 응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로 밀려난 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깊은 위로와 은총이 HIV 이 름으로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를 기억함

15일째

3월 1일
금요일

마가복음서 14:9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무명의 여성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식탁은 이내 집단 괴롭힘의 자리로 변합니다. 경제 효율성, 공공성 논리가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 즉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외적 사건으로 봅니다. 이 일 이후에 또 한 번의 식사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성찬식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성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고전 11:23-26).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이 여성이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 큰 일을 행한 영웅들을 기념하며 의식을 행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성들의 업적은 망각 속에 자리합니다. 망각 역시 행위입니다. 마가를 비롯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억되리라 했던 그 여성을 호명하지 않는 것처럼요. 심지어 그를 창녀, 간음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해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 역사가 남성 영웅과 위인들을 만들어 내고 기록하고 기념할 때, 예수님은 이름 없는 그 여성의 예지와 헌신을 우리의 기억 속에 소환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여성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눈물로 염원하며 자신을 희생한 이름 없는 여성, 믿음의 선조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천적 사랑은 기억의 행위 속에 이어져 내려옵니다.

미묘한 차별

16일째

3월 2일
토요일

누가복음서 12:3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미묘한 차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차별적 언어나 행동,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흑형, 호모, 꿀벅지, 흥어 등의 지시어나 ‘여자가 말이야’, ‘넌 이번 방학에 성형 안 하나?’ 따위의 말은 설사 나쁜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 있으며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강병철 외, 『성소수자_LGBT(Q)』)

어떤 이들은 소수자에 대해 혐오와 부정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 주장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혐오와 차별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개인 인생과 지향을 찬성하고 반대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은 ‘싫다’, ‘반대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게 되죠. 한편 ‘나는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겠다, 관심을 끌겠다’라고도 합니다. 소수자 인권과 나는 ‘별개다’라고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상’이라는 확보된 특권을 누리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 심지어는 고독한 죽음까지를 조장하고 방치하며, 이런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태도입니다.

식물 시장에 가면 손가락을 닮은 ‘실린드리카 산세베리아’를 ‘스투키’라고 하면서 대부분 판매합니다. 수국과 국화만큼 다른 데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문에 휩쓸립니다.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타인을, 또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사순절 셋째주일

3월 3일
일요일

마태복음서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교회의 행위가 부정적, 긍정적 차원 모두에서 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교회의 자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에 한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장소는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세상 속, 사회 한 가운데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은 세상에서 분리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시이며 표지입니다. 정교회 신학자 폴 에브도키모프는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교회가 어디에 없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나, 세상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자리 별들

17일째

3월 4일
월요일

마태복음서 4: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지난해 2023년 헬리 혜성이 반환점을 돌았고, 이제 지구를 향해서 76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으로 다가오려면 38년이 걸리는 먼 여행입니다. 2061년이 바로 그 해입니다. 혜성은 시속 3280km로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몸통이 긴 물고기 같치처럼 말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물고기 모양 안에 ‘익투스(ΙΧΘΥΣ)’라 쓰인 그리스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서로가 교우임을 알리는 암호로 사용했지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깊은 심해에서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상징으로요. 천문학자 요한네스 케플러는 동방박사 이야기의 별을 목성과 토성의 만남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두 별은 854년마다 만나 밝게 빛난다고 해요. 이를 대상합(大相合) 현상이라 합니다. 이 현상이 물고기자리 별들 위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정모, 『바이블 사이언스』). 그래서 물고기자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자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일, 바다를 바라보는 일, 물고기 한 마리의 생명에도 주님의 뜻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인간이 쏘아 올린 위성의 잔해가 우주 쓰레기로, 바다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방사능 폐기수 등 바다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요 물고기자리 별들인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의 사회적 실천

18일째

3월 5일
화요일

누가복음서 1:46-50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복지는 늘어갑니다. 시민의 안정된 삶을 늘여가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급성장과 시장 논리에서 탈락한 이들을 위한 연민의 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했으나, 복지는 연대와 공감의 영역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상처만이 아니라 상처가 생긴 원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로써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 나가게 합니다. 동정이라는 허구적 관용에 맞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연대하여 부당한 질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실천을 하겠다는 것은 개별적 담을 허물고 연대하여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겪는 재난이 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권 기반적 인식으로 연대할 때 형성됩니다. 교회의 돌봄 사역이 인권에 기반하게 되면 교회는 돌봄 센터(care center)라기보다 공적 센터(community center)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봄 센터가 동정과 시혜의 감정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라면, 커뮤니티 센터는 권리와 연대를 통해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돌봄 사역은 돌보는 자(carer)를 넘어 공동체의 중재자(mediator)입니다.

한 평화운동가의 죽음

19일째

3월 6일
수요일

마태복음서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스라엘계 캐나다 여성 평화운동가 비비안 실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하마스 무장 대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실버는 여성 평화단체 <평화를 일으키는 여성들(Women Wage Peace)>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환자들을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하는 <회복의 길(Road to Recovery)>도 조직해 병들고 다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이스라엘인이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친구가 더 많았던 실버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살해당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비극입니다. 생전 그의 모든 평화 노력이 허무한 실패로 돌아간 증거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버의 아들 요나단 자이젠은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것은 어머니 실버의 노력이 어리석거나 순진하거나 쓸데없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머니의 평화 실천을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폭력은 실버의 실패가 아니라 실버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은 세계의 실패, 우리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애쓰는 것, 그것이 실버가 우리에게 남겨 준 평화 소명입니다.

나쁜 질문

20일째

3월 7일
목요일

요한복음서 1:22-23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यो?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소.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यो.”

당시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새로운 윤리를 실천하도록 했던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요한은 유대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틀에 맞춰 분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분류는 통제를 위한 일이고, 그래야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이들은 불안해집니다. 메시아도 아니라 하고, 예언자도 아니라 하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들의 질문에 혼란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이 나쁜 이유는 타인을 분류하고 갈라쳐서 통제와 지배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가족과 이력까지 알고 싶은 욕망은 인권침해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성적 다양성을 대하는 태도와 피부색과 출신지를 알아내려는 욕망이 그렇습니다. 통제하려는 나쁜 질문은 삼가고, 있는 그대로 맞이합시다. 사람이면 됩니다. 그가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처음 만나는 경우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환대라야 합니다.

화해의 사역

21일째

3월 8일
금요일

고린도후서 5:17-18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고린도에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었고, 신분 상승은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었다는 복음은,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에 가치를 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더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새창조의 세계가 도래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세계 속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던 바울은 영적인 급진성에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부장질서를 아주 벗어날 수 없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노예제를 아주 폐기할 수는 없지만, 주인은 노예를 형제자매로 대접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배우라고 한 것도 이런 목회적, 선교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을 테지요.

21세기 한국 교회가 성경의 몇몇 구절을 들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초기 기독교교회의 신앙 경험과 고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렸던 하나님의 새창조의 세계에는 배제와 차별이 없습니다.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서 화해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루후제

22일째

3월 9일
토요일

마태복음서 26: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제주 말로 ‘이 다음에’ ‘훗날’ ‘미래’를 뜻하는 말이 ‘이루후제’입니다. 오늘 힘들고 괴로워도 때가 차면 ‘이루후제’의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지요. 또 제주에는 남방큰돌고래가 사는데,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섬을 빙빙 돌며 재롱을 피웁니다. 제주도 말로 돌고래는 ‘곰세기’입니다. 배가 지나가면 해녀들은 큰소리로 곰세기에게 주의를 줍니다. “곰세기들아! 배 알로 가주게.” ‘알로’란 ‘아래로’ 가라는 말로, 다치니까 깊이 잠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돌고래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점프놀이를 멈추고 배 밑으로 휙 사라집니다. 이루후제를 위해 ‘알로’ 내려가는 것이죠.

목장을 하는 친구 집에 가끔 들러보면, 흙병덩이길(흙길) 끝, 출왓(풀밭)과 낭밭(과수원)이 있습니다. 왁왁하게(킴킴하게) 어둔 숲 그늘 아래서 삼춘(삼춘)들이 모여 일하는 굴밭. 일 마치면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며 손을 이끍니다.

제주 사람들은 농사에 있어 이루후제를 위해 땅을 쉬게 해주는데, 이를 ‘바령하다’라고 합니다. 말과 소를 그 땅에 가두어 먹이면서 그들의 배설물이 거름이 되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은 비록 마소의 똥 오줌으로 젖은 땅이지만 이루후제 때가 되면 금이야 옥이야 옥토가 될 것입니다. 수고와 고생의 때가 지나야 좋은 날도 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노래할 것인가?

사순절 넷째주일

3월 10일
일요일

잠언 26:23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자서전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 거셌던 1950년대 후반 미국 남부에서 직접 겪은 일을 회고합니다. 버거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 직후 있었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집회에 참석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사회학자인 그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대중집회인데도 개신교 부흥회와 흡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흑인 교회 특유의 수사적 스타일, 군중의 환희에 찬 ‘아멘’, ‘할렐루야’ 연호,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 “만세 반석 열리니”와 같은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버거는 남부의 대표적 인종차별 집단 <쿠 클럭스 클랜(KKK)>의 집회에도 가 봤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밤에 열린 그 집회에서 악명 높은 하얀 두건을 쓴 KKK 단원들은 인종차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집회의 절정은 십자가 점화였는데, 십자가가 불길 속에 타오르자 군중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갈보리산 위에”였습니다. 버거는 그리스도교의 동일한 종교적 상징이 서로 정반대인 도덕적 운동과 비도덕적 운동에서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를 위해 노래할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한 노래라 해도 그것이 차별과 혐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은을 살짝 입힌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경건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사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23일째

3월 11일
월요일

마태복음서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자영업 환경을 키운 한국의 고용불안은 재벌 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어발식 기업운영으로 작은 공장, 작은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자영업을 시작하고, 프랜차이즈라는 족쇄에 또 매이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재벌 기업의 총자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나지요. 오래 근무하고 나이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말은 숙련도, 혹은 업무 관장능력을 감추고 내뱉는 말입니다. 노동자 사이 분열을 통해 제 이윤을 더 가져갈 뿐이죠. 한국의 임금 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한 연공급제,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조합된 임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기에 ‘상여금, 가족수당, 학비 보조금, 휴가비, 식대’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라 보고, 언제라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성과주의 임금 체계는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어렵고요. 입만 열면 ‘천재 한 명이 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지만, 그들의 부는 성실한 바 닥 노동자들이 쌓은 탑입니다. 예수님은 직원과 임원 간의 임금 격차도 없는, 성과와 관계없이 안전과 임금을 보호받는 노동환경을 바라십니다. 지금부터 가수 하림의 노래 ‘우사일’(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매진(imagine)’을 함께 풀어봅시다.

약한 것을 약하게

24일째

3월 12일
화요일

고린도후서 12:9-10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과 강함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잡는 이들은 선을 행하다가 세상에서 고발된 이들입니다. 소위 질서를 말하며 통제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에게서, 선을 뺏기고 삶을 뺏긴 이들입니다. 공의가 빠진 공권력은 이 역사에서 수많은 선한 이들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공권력을 이기는 힘을 갖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박받았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두려워 떨고 있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지도 못하고, 전략을 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고발하고 가슴을 치며 나열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기대고,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기댈 뿐이어서, 우리의 기도는 애통과 패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선한 이들의 행동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혼자라 여길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고자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주님, 애통 속에 탄원하는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죄의 용서와 빛의 탕감

25일째

3월 13일
수요일

마태복음서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통상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죄” 또는 “잘못”의 용서는 “빛”의 탕감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빛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빚 부담과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하지요. 빛은 전지구상의 문제입니다. 2023년 전 세계의 정부 부채는 97조 달러이고, 한국의 경우는 9,281억 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국민 일인당 2,4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는 국가로부터 글로벌 금융자본으로 주권이 이양된 현실을 “빚 통치권”(debt sovereignty)이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관해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고 지도자들은 빚 매니저로 전락한 거죠.

나도 빛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빚을 구제해 준다는 것은 가장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빛이 지배하는 경제시스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지도 모릅니다(롬 13:8). 그러함에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빛이 더이상 서민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처참히 짓밟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에서

26일째

3월 14일
목요일

누가복음서 23:26-28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의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시대적 과제로 정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호응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에 나선 사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10년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간 국가는 모든 원칙에 무능했고, 모든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묵은 분노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될 뿐입니다.

참사 이후 10년 동안 교회는 어떤 성숙함을 가졌을까, 궁금합니다. 교회가 차별과 혐오로 참사를 대할 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들과 연대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아픔으로 연대하는 공동체는 종교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공적이며 공의를 실행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오늘날 이들에게도 허용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살이건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교회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가 나를 믿다

27일째

3월 15일
금요일

마태복음서 15:22-23, 26-28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님은 믿음을 드러내는 대화로 이끌어갑니다. 표피적인 고백을 넘어 내면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어 믿음은 너의 것이었고, 기적은 네 믿음의 결과라고 알게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태도는 성가신 일거리를 처리하듯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믿음을 의존적인 상태로 이해합니다. 힘을 가진 존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영적 깊이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 안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을 살고, 순간에 표현됩니다. 믿음은 행동이어서 그렇습니다.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은 삶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였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믿음은 우리 안 깊은 곳에 이미 있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손을 내밉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약속

28일째

3월 16일
토요일

창세기 11:4-5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바벨탑은 ‘지구라트’라 불리는, 달의 신 ‘난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 중동의 건축물입니다. 수메르인을 비롯한 여러 부족이 바빌로니아에 유입되고, 전쟁과 무역을 통해 노예들이 도시에 집중되자 언어의 대혼란에 빠진 일을 담아낸 장면이지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인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수메르 신화 <엔메칼과 아라타의 주님>이란 문서에 따르면, 한가지 언어로 지내다가 흘러든 유민들에 의해 언어가 복잡해지고 결국 못 알아듣게 되자 분리, 탈주극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사냥꾼의 수호자 ‘닌우르타’가 등장해요. 그는 전쟁과 약탈을 좋아해 도성과 고을을 빼앗고,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킨 뒤 높다란 랜드마크(Landmark)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이 바벨탑 애긴 ‘중앙집권, 전체주의, 통제, 도시집중’에 대한 성서 기자의 부정적 시각이 엿보입니다.

역설로 변두리, 외곽, 주변의 각개적 존재와 분투는 주님의 ‘풍성한 세계’를 맛보게 만듭니다. 교회 안의 다른 전통, 다양성은 세계와 인간 사회의 생동감이며 싹틔줄이지 않을까요. 타자를 인정하고 관용하며, 선한 이웃으로 지내자는 약속, 에큐메니칼 운동의 약속입니다.

NCCK 100주년, 사랑의 역사

사순절 다섯째주일

3월 17일
일요일

마태복음서 4:24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2024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신앙 기치 아래 NCCK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가난과 독재의 시대, NCCK는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독재와 분단 극복, 인권을 위한 실천 현장엔 언제나 NCCK가 있었습니다. NCCK의 역사는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교회를 찾아와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피난처'요 그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이 시대 차별받고 혐오 당하고 배제되는 이들이 찾아와 기댈 언덕인가요?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 받는 소수자와 약자는 교회와 성당을 찾는 대신 굴뚝과 전광판과 송전탑 같은 고공으로 올라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 고공의 장소가 교회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것은 높이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아프고 억울할 때 교회를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NCCK 백주년이 단지 단체 창립을 기념하는 해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못 민족과 더불어 빛을 모으는 교회

29일째

3월 18일
월요일

이사야서 49:6b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못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 묵상집의 표지 그림을 그린 마크 엘리스(Marc H. Ellis)는 유대인 해방신학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고유한 것은 예언자적 전통입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스는 역사 속에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민족의 고난의 경험을 타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도리어 부여받은 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인종말살 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해온 거죠. 이러한 예언자적 저항의 대가는 학계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와 추방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1980-1995년, 뉴욕 메리놀 대학에서 가르치며 한반도 통일에 관해 연구하러 온 문규현 신부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사회적 영성의 산실인 메리놀에서 엘리스가 깨닫게 된 것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각 민족과 나라에는 양심적 예언자들의 목소리와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유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들과 더불어 “빛을 모으는” 일이 그의 사명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언자의 길을 길었던 한국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가 다른 민족의 예언자들과 힘을 모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억압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와 희망

30일째

3월 19일
화요일

이사야서 51:4-7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 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못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 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구약성서는 희망의 책입니다. '회복'이라는 희망 한 점을 향해 그 긴 역사 자료를 편집하고 기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와해되고 끌려간 포로 현장에서 그들을 견디게 했던 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이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그들은 긴 역사를 성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 흐름과 함께 합니다. 비로소 희망이 말해지는 지점입니다.

무능한 정치와 전쟁의 조짐과 난민을 돕지 못하는 정책과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도자들로 세계의 어두운 그들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참혹한 시대인 만큼 우리의 사랑도 혹독하리라 예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불확실하고 거친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도 내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기도가 되기를

31일째

3월 20일
수요일

미가서 6:8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편협하고 위험합니다.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또는 반대로 불이익을 준다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좋은 종교인이 반드시 좋은 정치인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기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믿었다고 합니다. 카터는 퇴임 후에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수적인 남침례교 일원이면서도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남침례교 교회가 여성 차별적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교단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정치인이 종교가 있든 없든 카터처럼 기도하듯 정치를 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선 정의와 자비를 겸손히 실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

32일째

3월 21일
목요일

마가복음서 14: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옆드려서 울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기필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응답합니다. 킹제임스와 라틴어 성경 등은 베드로가 처음 부인했을 때 닭이 첫 번째 울었다고 하는 고대 사본의 번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첫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경각심이 생겨서 예수를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닭이 두 번 우는 순간,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옆드려 울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안식일 후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들은 어떤 젊은이가 전해 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낮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마감했을까요? 전쟁과 성전 파괴 같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일까요?

10년 전 진도 앞 깊은 바다가 세월호를 탔던 어린 생명들의 빈무덤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 다시금 젊은 목숨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갈 때도 우리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둬지는 사회적 재난 앞에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서 울고 있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아는 우리는,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속

33일째

3월 22일
금요일

마태복음서 24:14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비로소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 (...) 얼마나 포탄이 많이 날아다녀야 포탄을 영원히 금지할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네.” 전쟁과 폭력의 20세기에 인류의 고통과 불안을 노래했던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들으면 “주여, 언제입니까?”라는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는 차별과 혐오와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재의 시대는 지나가고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이라고 믿었지만, 전 세계에서 몰아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광풍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자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2천 년이 지나도록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연된 하나님 나라는 미완의 역사, 아니 실패의 역사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천 년 동안 ‘지연’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요.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인류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적 같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기력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경이와 희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이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님 나라 운동의 새로운 한 걸음입니다.

완벽한 불행은 없다

34일째

3월 23일
토요일

고린도후서 1:10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에 우리는 어둠의 깊이에 정비례하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고통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어둠 속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둠 속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유대인 화학자이며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 생존자입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어둠인 홀로코스트의 극한 고통 속에서 살아 나온 그가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얼마쯤 살다 보면 완벽한 행복이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측면을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드물다. 즉 완벽한 불행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완벽한 행복’이 없는 만큼 ‘완벽한 불행’도 없다는 레비의 통찰은 어둠 속의 우리에게 작은 촛불 같은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해도 완전한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엔 빛이 있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희망의 근거는 ‘없었던 구원’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있었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협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어둠과 고통 속에 있을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을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얻습니다.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며 희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이유요 의미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

종려주일

3월 24일
일요일

요한복음서 15:13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슬로바키아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을 역임한 장 밀릭 로흐만은 『해방의 축제-기독교 절기의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산 치하에 프라하의 많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파괴와 숙청을 겪었는데, 한 성당의 외벽 글씨만 유독 살아남았답니다. “십자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여(Ave Crux, Spes Unica!)”. 오히려 시내에 가장 봄비는 장소에 성당이 있었고, 늘어선 집들에 이어져 세운 건물이라 눈에 띄지 않아서였답니다.

십자가는 과거 ‘저주의 형틀’이었지요. 신명기의 율법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갈 3:13)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피가 마르다가 죽어가는 고문과 기나긴 처형 시간에 치를 떨게 만들었지요.

나무는 줄기가 하늘로 향하지만 뿌리는 땅으로 향합니다. 또 나이테는 수평으로 뻗어 옆으로, 곁으로 향합니다. 나무의 진면목은 앙상한 나뭇잎입니다. 푸른 잎을 떨구고 깡마른 모양으로 겨울을 굳세게 나지요. 어찌다가 밑동이 잘려서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삼아진 나무의 운명, 참으로 슬프고 처절한 신세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창조주의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뜨거운 피를 제 몸에 흡수 적시게 됩니다. 아래로 위로 그리고 옆으로, 우주 사방으로, 시간의 저 끝으로 십자가 나무가 사랑의 방향을 영원에 두는 순간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 저주가 아니라 사랑임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가슴에 새순이 돋을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 외로운 자리에서 ‘함께’

고난주간 월요일

3월 25일

시편 37:3-5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고자가 되고 맞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월요일은 내 일터였던 세종호텔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외침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한 주의 투쟁 활동을 계획합니다.

화요일은 도시가스 연대로, 수요일은 유천초 부당징계 연대로,

목요일은 세종호텔 해고자 투쟁문화제로,

매론 멀리 구미의 아사히글라스 복직투쟁 연대와

한국오텍칼 고공농성 연대,

울산의 서진, 부산에 있는 서면시장에까지 연대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투쟁이 끝이 나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故방영환, 故김용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로 죽고,
 국가가 지키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애끓는 심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속히 밝혀지도록 도우시며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히, 재판과정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우시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쟁의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투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탐욕과 전쟁, 짓눌린 정의

고난주간 화요일

3월 26일

시편 7:3-5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마치 무슬림과 유대인 간의
수백 년 된 해묵은 종교 갈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종교적 갈등이 아님을 알고 계시지요.

1948년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민병대가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향에서 몰아낸 그 역사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밀어낸 부정의입니다.

주님, 2023년 현재,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우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죄없는 어린이와 여성, 의료진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자 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교회가 무수한 폭격을 받아왔고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 또한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안 된다” “우리의 이름으로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언하는 양심적인 유대인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존엄이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와 정의를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옹호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폭력이 생명을 파괴하고 짓누른 가자 지구에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리암 이브라함 | 국내 거주 팔레스타인 시민

“네가 너의 나라에서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앤다면”

고난주간 수요일

3월 27일

이사야서 58:9b-12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 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내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며 국제적 분쟁이 늘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한숨만 늘어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로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하셨던 주님,
약자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또한 새로운 해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결과 분열보다는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연대와 사랑으로 약자를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용선 | 대한민국 국회의원

잔악한 편리성

고난주간 목요일

3월 28일

창세기 6:5-7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끝없는 풍요의 욕망은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창조세계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며,
지하수는 고갈되어 다양한 생명체가 갈증에 허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은 온갖 생명을 검은 잔해로 변하게 하고,
순식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도심의 거리를 두려움의 물결로 파도치게 합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소식과
인간이 무책임하게 바다로 내던진 핵폐기물로 인해
모든 지구의 생명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플라스틱으로 숨구멍이 막히고
제집에서 쫓겨나며, 다양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파괴한 오만한 인간은

기술로 창조세계를 복원하려는 듯 온갖 술수를 자처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생명체들의 삶의 공간이 파괴될 뿐입니다.

땅의 흔들림과 무너짐으로 공포에 떨던 몇 년 전,
지진으로 쏟아진 벽돌을 치우며 쓰러진 벽들 사이로
흘어지고 구겨진 가재도구를 추스르던 그 당시가 생생합니다.

창조세계가 암흑과 같이 암담할수록 생명을 향한 빛이 필요하고,
인간의 잔악함이 독과 같이 짙을수록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듯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을 향한 부르짖음과 정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길을 돌이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서로 돌봄과 생명 존중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억압받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대명 |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듣는 이 없는 주님의 절규

고난주간 금요일

3월 29일

히박국 1:2-4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끝을 알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 안에서 처음과 끝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나'라는 존재의 처음과 끝,
그리고 참사로 갑작스럽게 맞은 내 딸의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처음과 끝을 부여잡고
지난 10년을 씩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언제쯤이면 분명하게 드러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줄까요?

언제쯤이면 당신의 가르치심대로
사랑만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초대교회는 무덤에 머물며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지금의 교회는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끌어안으셨는데
 저들은 죽음 이후의 삶과 벽을 쌓고 현실의 안일만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2천 년 넘게 묵상하듯
 현재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들여다보고 연대하며
 죽음이라는 경계 넘어 있는 자들의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저희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망각의 유혹에서 벗어나
 2014년 저희가 올려드린 회개의 고백과 다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참사를 보고도
 굳은 마음으로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절규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규임을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가르침대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소망을 만들어 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은희 | 단원고 유예은 엄마

부활 전 토요일입니다.

40일째

3월 30일
토요일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던 이가 떠난 자리는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참회하며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부활! 따뜻한 사랑!

부활주일

3월 31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구 곳곳의 재난과 전쟁 소식이 어느새 익숙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폐허 속에 큰 눈물 가득 먹은 슬픈 얼굴, 전쟁으로 참혹하게 얼룩진 폭력과 공포의 무게, 플라스틱으로 장이 꽉 막힌 향유고래, 비닐봉지에 온몸이 감겨버린 황새,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걸까요? 익숙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익숙해지고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할 생명존중의 공동선과 가치, 그 기준들이 무뎌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정이 무디어지고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보여주신 '실천적 사랑' 때문이지요. 왜곡과 양극화, 혐오와 폭력이라는 극단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을 몸소 사시고, 이 세상에 사랑의 길을 내신 주님께서 죽음의 폭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전에 두려워만 했던 그 길을 다시,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위험하고 따뜻한, 사랑

2024년 1월 26일 초판 1쇄 인쇄

2024년 1월 31일 초판 1쇄 발행

역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펴낸이 김종생

펴낸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706호

편집책임 강석훈 서범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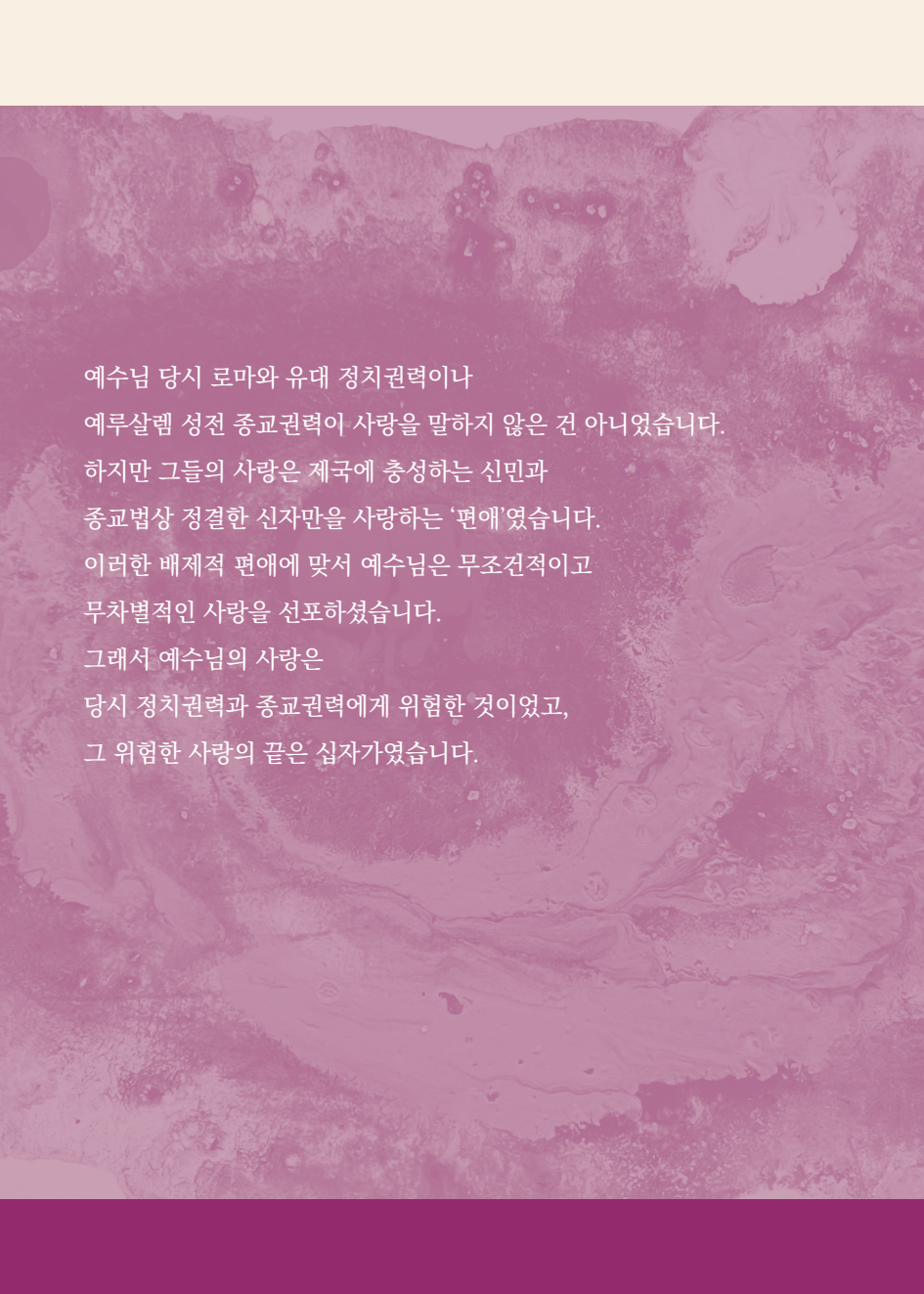
전화 02-743-4471

팩스 02-744-6189

디자인 동방기획(02-2277-0365)

Copyright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상집 사용 외에 다른 목적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와 유대 정치권력이나
예루살렘 성전 종교권력이 사랑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과
종교법상 정결한 신자만을 사랑하는 '편애'였습니다.
이러한 배제적 편애에 맞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에게 위협한 것이었고,
그 위협한 사랑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